

<서평>

한 권에 담긴 한국 동남아학의 여정

안청시 · 전제성 엮음,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부 경 환*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지 30여 년.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 현황 및 분석』이 발간되었다.

그동안 국내 동남아 연구에 대한 리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한국동남아학회 차원에서 학회지 창간 15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좌담 형식을 빌려 인류학, 역사학, 어문학, 정치학, 경제학 등 주요 학문 분야별 동남아 연구를 반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오명석 외 2008), 이후에도 분야별로 연구 역사나 동향을 정리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박변순 2011; 나희량 2012; 최병욱 2015; 김소연 · 강하니 2018; 강희정 2018). 역사학계에서는 꽤나 오래전부터 『역사학보』의 ‘회고와 전망’ 섹션을 통해 주기적으로 동남아 역사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동남아학계 전반의 노력과 성과,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접근과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으며(조흥국 2001; 전제성 2006; 전제성 · 이재현 2008; 박승우 2009; 신윤환 2015), 일부는 국제학계에도 소개가 되었다(CSEAS 2011; Park and

* 아시아문화원 연구원, suasdei@gmail.com

King 2013). 그럼에도 국가별 연구 동향에 대한 정리와 분석은 별달리 없었는데, 동남아 연구의 특성상 국가별 분화가 비교적 뚜렷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꼭 필요했던 작업이 이뤄진 셈이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역사와 현황 전체를 조망하는 1장과 10장, 그리고 개별 국가 여덟 곳과 아세안 연구를 살펴보는 2장 ~ 9장이다.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 축적도가 낮고 저변이 빈약한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한 장(8장)에서 함께 다뤄졌으며,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등 3개국은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최근 들어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을 별도의 장(9장)으로 구성한 것이 눈에 띈다. 본 서평에서는 편의상 아세안까지 포함하여 ‘국가별 분석’이라 칭하겠다.

국가별 분석은 순서대로 김형준·전제성(인도네시아), 이한우(베트남), 김홍구·이미지(태국), 정범모(필리핀), 김형중(말레이시아, 아세안), 오윤아(미얀마), 정미경(캄보디아, 라오스) 등 주로 해당 지역의 전공자가 담당하였다. 정치학자가 다수를 이룬 가운데, 인류학, 지역학, 개발학 등 여러 학문적 배경을 지닌 저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책의 공동 편집을 맡았으며, 김형준 교수와 함께 인도네시아 편을 쓴 전제성 교수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학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아시아리뷰』에 게재된—달리 말하면 ‘연재’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논문 시리즈를 모태로 하고 있다. 2011년 『아시아리뷰』가 창간되면서 처음에는 지역연구의 주요 이슈나 이론을 소개한다든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각 지역별 연구 동향에 지면을 할애했는데, 2013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별 연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석이 차례차례 추진되었다. 논문이 게재된 이후

에도 데이터의 추가,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학술회의 발표나 저자들 간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흔적이 드러난다.

본격적인 국가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1장은 제목 그대로 “동남아학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동남아 연구 사례나 한국의 타 지역연구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동남아 연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며, 그 원천에 “연구자 집단의 형성과 전략적 노력”이 있다고 보았다(2~3쪽). 1990년대 이후 한국동남아학회의 출범, 그리고 동남아정치학회, 동남아지역연구회를 거친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두 초대학적 연구기관이 결성되고 본격적인 한국의 동남아 연구를 견인하게 된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동남아 연구가 활성화됐던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 특정 대학을 중심으로 동남아 연구가 발전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이고 독특한 현상이라 평가하였다.

국내 대학 내 동남아 연구와 교육이 기대만큼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남아학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원 마련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사실 평가 역시도 여러 혜택을 받은 수혜자이다. 연구회원 독회와 단기현지연수 프로그램(Advanced Seminar)을 통해 전공 연구지역과 분과학문 외에 다양한 동남아 연구를 접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현지조사 지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할 리 없는 대학원생에게 대단히 큰 동력을 제공해주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대학원생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학계에는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한 선순환적 재생산이 가능하게 한 기제였다. 평지는 현재 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연구 학계도 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학문후속세대

육성 전략과 노력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본 서평을 읽는 동남아학계 바깥의 독자를 위해 잠깐 정보를 덧붙이자면, 연구기관 결성 과정에 대해서는 저자의 다른 논문(전제성 2006), 그리고 후속세대 양성에 대해서는 저자와 이재현 박사가 함께 쓴 논문(전제성·이재현 2008)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다면 찾아보길 권한다. 십여 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상황이 변한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내용도 많으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편 1장 전반부가 동남아학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소개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현재의 학계 현황을 간략히 훑어본다. 한국동남아연구소와 한국동남아학회 정회원의 지역별,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고, 학회지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분야별, 지역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연구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연구보다는 사례연구가 많다는 점, 현지조사 또는 현지어 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개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아 학계 형성 초기 정치학자들의 리더십을 조명함과 동시에 최근 인류학자의 증가세에 주목하며, 이들이 연구 방법론 발전에 기여하고 연대형성자로서 기능하면서 향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1장은 동남아학계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이미 다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외부 독자에게는 학계의 모습을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문 역할을 한다.

2장부터 시작되는 국가별 분석의 연구방법과 구성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해당 국가 연구에 대한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역사, 경향, 특징, 쟁점 등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방식이다. 저자들은 주로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학술자료 검색사이트에서 국가명, 주요 지명이

나 키워드 등으로 검색한 결과에 나름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 목적에 맞는 연구를 추려냈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를 활용하거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정보를 더하기도 하였다. 다만 연구 분야와 주제, 다국가(지역) 간 비교연구, 재한 유학생의 학위논문 등에 있어서 포함 범위는 저자별로 편차가 있다.

각 장의 전반부에서는 최초의 연구가 무엇인지,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추세는 어떠한지, 주요 연구자 현황은 어떠한지 등을 꼼꼼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거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각 장의 전반부가 다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후반부는 장마다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연구 현황 특성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각 저자의 관심과 시각이 보다 자유롭게 발휘된 것일 수도 있다.

국가별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은 10장에 다시 친절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다. 독자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1장과 10장을 먼저 읽고 나서 국가별 분석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별 분석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발견된다. 우선 연구의 양적 성장과 연구 주제의 다변화이다. 국가별, 분야별로 연구가 증가하던 시기가 있는데, 대체로 민주화, 개혁개방, 금융위기 등과 같이 파급력이 큰 정치적·경제적 변동이 있거나, 교역과 투자, 공적개발원조, 결혼이주, 유학, 관광, 한류 등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학문적 연구 수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1990년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따른 국제대학원 설립과 지역연구 지원, 학술지 창간에 따른 논문 수요와 공급 유발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국가별 연구가 전체적으로 급증한

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동남아 출신 유학생의 역할이다. 특히 학위논문에서 이들의 비중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최근 10년 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연구에서 전체 학위논문의 절반 이상을 유학생이 생산했다. 책에서 제시된 수치를 대조하거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필리핀과 라오스의 경우에도 상대적 비중은 덜하더라도 유학생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같은 동남아 유학생의 증가를 두고 “초국가적 성격” 강화로 인한 “활력적 요소”로 보며 긍정적으로 기대하였다(337쪽).

연구 분야와 주제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 속에 비교적 유사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문화 분야 연구의 증가세이다. 인류학 전공자의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인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사회·문화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증가라는 동일한 현상 속에서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특색과 맥락이 드러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이공계 논문의 증가가 발견되었으며, 태국은 현지의 한국어 교육 수요에 따라 어문학·교육 분야 연구의 급성장이 두드러졌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결혼이주와 다문화를 다룬 논문이 급증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경제 이슈,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하여 경제 분야 논문이 꾸준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미얀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관련 논문이 늘어나고 있다. 학문적 생산성 역시 현재의 사회적 이슈와 수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구의 양적 성장 속에서도 단행본 발간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모든 저자들이 한목소리로 자조하고 있다. 보고서, 여행서나 체험기, 문학 작품, 어학용 교재와 사전류 등을 제외한다면 의미 있는 학술서는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번역서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근래 들어 중요한 저작들이 동남아 전공자에 의해 번역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현상이나, 각국의 연구를 위한 고전, 필독서로 꼽힐 만한 책들 상당수가 여전히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촉구되었다. 특히 학위논문 추이 분석 결과 동남아를 전공하지 않은 지도교수 아래에서 논문을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학술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보았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은 필수이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학계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닐지 모른다. 모두 알다시피 사람들은 점점 책을 읽지 않고, 책 시장에서 동남아는 여전히 관심 밖 분야이다. 출판계에 몸담고 있는 평자의 지인은 독자들은 아시아에 대해, 심지어 일본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였다. 한 출판사 대표는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갈 때는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사서 보지만, 동남아 여행을 갈 때는 책을 사보지 않는다는 ‘슬픈’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다. 책이란 것은 논문과 다르게 제작비가 필요하고, 출판사는 자원 봉사 단체가 아니다. 학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대목이다.

모든 국가별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혹은 분석된 것은—아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마주하는 중요한 이슈가 동남아 연구자 간 분리 현상이다. 인도네시아 편의 두 저자가 공을 들여 분석하고 가장 큰 쟁점으로 짚고 있는 것도 바로 국내 인도네시아 연구자 간 내적 분리, 칸막이 현상이다. 한국동남아학회가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와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가 발간하는 『동남아연구』에 게재된 인도네시아 관련 논문의 연구자 정보, 인용 빈도와 추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외대와 비한국외대 출신 간 간극과 편향성을 실증적 데이터로 내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과 어문학 분야

간의 분리, 더 나아가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 간의 분리를 분석하며, 앞으로 극복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 현상은 태국 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태국은 개별 국가에 대한 별도의 학회인 한국태국학회가 존재하며, 학회가 창립된 1988년부터 학술지 『한국태국학회논총』이 발간되고 있다. 저자들은 『동남아시아연구』, 『동남아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등 학술지 3종의 분석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지위에 따른 학술지 간 역학 관계, 외국인 연구자의 투고 추세 등을 밝혀냈다. 한국외대 출신과 비한국외대 출신 간 각 학술지의 논문 비중, 교차 게재 연구자 수, 학술지 간 상호 인용 비율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문학과 지역연구 간 분리화 현상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 편은 인도네시아, 태국 편과 조금 다른 형태의 연구자 간 분리를 보여준다. 필리핀어(따갈로그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선 두 국가와 같은 ‘한국외대 대 비한국외대’의 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필리핀 유학파를 중심으로 결성됐던 한국필리핀학회(『필리핀연구』), 현재의 한국아시아학회(『아시아연구』)와 한국동남아학회(『동남아시아연구』) 사이에 나타나는 단절과 분리 현상을 언급하였다. 한편, 저자가 더 큰 의문과 관심을 두었던 사항은 필리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왜 필리핀 연구자는 극소수인지, 한국으로 유학 오는 필리핀인 수가 급증했지만 이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지 등이다. 이는 한국과 필리핀인 상당수가 유학을 가더라도 상대국이 아닌 본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 대학 내 상대국과 관련한 학과가 개설돼 있지 않다는 점, 연구자 집단 간 연구 분야가 달라 접점이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이 이유로 분석되었다.

전제성 교수는 마지막 장에서 한국 동남아 연구의 역사와 축적에 대해 “‘미지의 시대’ 발굴,” “다원적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책 전체

의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 이론 중 참여의 정도를 일컫는 “포괄성(inclusiveness)” 개념을 빌려와 마지막 키워드로 선택하였다. 분량은 짧지만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 연구 결과 생각보다 많은 동남아 연구와 연구자가 국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현재 학계(한국동남아학회)의 포괄성은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 만약 동남아 연구자의 기준점을 달리 잡으면 포괄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저자는 연구의 양적 성장과 조직의 자기중심성이 확보된 지금, 학계의 도약을 위하여 포괄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문·사회계의 내적 분절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공계 등 그동안 접점이 없었던 분야를 적극적으로 학계로 끌어들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저자는 단순히 선언적 문구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다. 학회 내에 주제별, 국가별(하위지역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분권과 자율의 원리로 학술활동을 고취하고,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의 참여와 네트워크 형성을 공고히 하는 것 등이다. 이에 각 대학에 소속된 학계 구성원들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끝맺음한다.

이 책의 의의는 무엇보다 방대한 범위와 분량의 연구를 망라하여 정리하고 분석한 데 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 작업이다. 평자가 시험 삼아 RISS에서 단순히 각 국가명만으로 검색했을 때에도 수천, 수만 건에 이르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 중에는 중복 자료도 많고, 실제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없는 것도 많다. 이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과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다. 저자들은 데이터를 시기별, 분야별로 분류·집계하고, 다시 비교·분석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쳤다. 실로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이 책의 기획자와 편집자, 각 저자들

의 부단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료를 찾거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조연을 아끼지 않은 여러 동료들의 도움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이 책을 읽으면 그동안 경험적으로 짐작하거나 때론 막연하게 얘기되던 것들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거나, 혹은 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연구자와 연구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도 큰 소득이다. 이로써 한국 동남아 연구사의 시간적, 공간적 지평도 더욱 확장되었다.

그렇다고 학계가 이룩한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냉정하고 담담하게 학계의 약점을 꼬집기도 한다. 이를테면 오랜 시간 자신의 전공지역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들이 학술지의 저조한 인용 실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학술지의 질적 제고와 학술지 간 배타적 태도 지양을 스스로 주문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 간 분리 실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 11개국 전체를 온전히 다루지는 못한 부분이다. 마지막 장에서 간략히 언급되긴 하나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연구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은 여러모로 아쉽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에 전문 연구자가 극소수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연구의 양은 예상 밖으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싱가포르 연구에 대한 분석이 또 다른 시사점을 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 부분은 책을 준비한 이들의 안타까움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분석 대상의 설정과 범주화에 있어 저자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편에서는 이공계 연구의 증가가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얀마 편에서는 이공계 연구가 아

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자 층위를 가름하거나 연구 분야와 시기를 구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서로서로 차이가 있었다. 물론 이 같은 각론의 불일치가 전체 연구 현황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진 않지만, 국가 간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데에는 미흡한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동남아학계에 속한 이들에게 현재 서있는 지점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 학계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연구 또는 그 외 학계에도 좋은 참고 사례로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남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문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특히 국가별 분석을 통해 수많은 연구들이 소개되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참고서’로서 기능할 수 있으니 여러 모로 쓸모가 많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5년,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독자로서, 동남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책을 꼭 보고 싶다. 그때는 어쩌면 메콩 연구와 같은 새로운 연구 지역이나 단위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다음에는 이번에 미처 다루지 못한 국가, 미약했던 분야도 풍성하게 채워질 만큼 동남아 연구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평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희정. 2018. “외연의 확대, 지평의 확산: 동남아 미술 연구 10년.” 『동남아시아연구』 28(3): 43-74.
- 김소연·강하니. 2018. “한국 동남아 국제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 비판적 동남아 지역연구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연구 심화 가능성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8(2): 47-84.
- 나희량. 2012.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 학술지 분석 및 방향성 모색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2): 43-93.
- 박번순. 2011.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아시아리뷰』 1(1): 227-258.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신윤환. 2015. “한국의 동남아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37-75.
- 오명석·김형준·최호림·조흥국·최병욱·김영애·박사명·정연식·박은홍·배공찬·박번순·전제성. 2008.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연구: 학문분야별 회고와 성찰.” 『동남아시아연구』 18(2): 331-399.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109-140.
- 전제성·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47-67.
- 최병욱. 2015. “‘한월관계사’에서 ‘동남아시아사’로: 동남아시아사

연구 동향 50년.” 『동양사학연구』 133: 463-48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역사학회. 『역사학보』.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SEAS), Kyoto University. 2011.

Kyoto Review of Southeast Asia 11 (Issue on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Park, Seung Woo and Victor T. King (eds.). 2013.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orea and Beyo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